

외국인 광주 투자 3년새 15배↑

올 9월까지 15개 업체 1억607만 달러 ... 평동외국인산단에 집중

외국인들의 광주지역 투자가 3년 사이에 15배가량 증가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까지 광주지역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5개 업체(18건), 1억 607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16개 업체(24건), 728만 달러에서 지난해 26개 업체(33건), 7510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올들어서도 이어져 최근 3년새 14.5배가 늘었다.

주요 투자유치 기업은 가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주)호원과 LED조명 선두주자인 엘이디라이텍, 광학부

품을 생산하는 피닉스텍, 캐리어에어컨을 인수한 오텍캐리어,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휘라포토닉스, 금정공업 등이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가장 많이 투자했다. 스위스는 지난 2009년 122만 4000달러를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306만5000달러, 올해 5346만4000달러로 총 5775만3000달러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케이만군도(2010년 5000만2000달러), 미국(2009년 455만9000달러, 2011년 4022만4000달러)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

이었다. 제조업 투자는 2009년 708만 7000달러, 지난해 7419만9000달러, 올해 1억290만2000달러 등 총 1억 8418만8000달러로 97.7%를 차지했다.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투자는 426만6000달러(2009년 19만6000달러, 2010년 90만1000달러, 2011년 316만9000달러)에 그쳤다. 특히 이들은 신규 공장 및 사업장 설립·증설에 투자했다.

외국인들은 주로 평동의외국인전용산단 입주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다. 이는 평동외국인산단의 경우, 장기저가 임대(50년, 월 임대료 m당 77

원)인데다 설비투자 및 고용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최대 15년간 100% 면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가아자동차의 성장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와 LED조명 등 광산업에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9년 37건 4억9900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1900만달러, 올해 3억600만달러로 감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F1 경기장서 광주은행 이용하세요”

임시 이동점포 운영...현금 입출금·환전 서비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011 F1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기간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회 경기장내에 광주은행 임시 이동점포를개설 운영한다.

지난 2011 F1대회 때도 임시점포를 운영한 광주은행은 일반고객들과 외국인 고객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도 F1대회의 성공개최와 관람객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대회장내 임시점

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동점포 운영장소는 메인그랜드 스탠드1곳, 상성 스탠드 2곳 등 총 3곳에 설치 운영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광주은행 이동점포는 자동화기기 이용을 통한 현금 입출금과 외국인을 위한 외화 환전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하이트진로 '광주전남사랑기금' 1817만2680원 기탁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는 ‘광주전남사랑기금 7차 조성금’ 1817만2680원을 13일 오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호준 회장, 하이트진로(주) 호남본부장 백광환 상무, 하이트진로(주) 성동옥 광주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가졌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참이슬 ‘情 나누는 지역사회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해 1월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조성 목표액 2억원 달성 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7차에 걸쳐



기탁된 1억2391만4400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성된 사랑기금으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돼 무리하지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3일 조선대학교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을 체결한 후 김형균 광주지방국세청장과 김만우 조선대학교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광주국세청, 조선대병원 등 7개 병원과 협약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13일 조선대학교병원 등 7개병원과 모범납세자 및 그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사업자 중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소속 근로자에게 조선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이 의료비를 할인해 우대함으로써 성실 기업인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자금심 고취와 건강증진에 기여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1년 이후 정부 포상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그 소속근로자로서 대상자는 약 33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의료비 우대혜택은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 진료비 20% ▲비급여 처방시 MRI진단료, C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의 20% ▲비급여 본인 부담금 중 검사 및 상등실 사용료 차액 15~20% ▲조선대학교병원의 경우 냉동안치료, 분향실료, 접객

▲의료비 우대혜택 병원=조선대학교병원,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실료 등 장례식장 사용료의 20% 할인혜택 등이다.

이번협약과 관련 공금한 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김철호(062-370-5333) 및 각 협약병원 원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매달 급속 증가

결제거부 땀 소비자 반발

소비자들이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매달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000원 이하의 카드결제 건수도 전체의 15%에 달해, 정부가 1만원 이하 상품 구매 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방안을 강행할 경우 소비자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 당국과 각 카드사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에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2억258만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 시 10건 중 3건은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를 하는 셈이다.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는 지난 7월에 전체의 29.2%에서 8월에 29.

9%로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만원 이하 카드 결제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2008년에 소액 결제 건수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자장면 1그릇값 정도인 5000원 이하를 카드로 결제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지난 9월에 5000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1억445만건으로 전체의 15.8%에 달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14.5%와 14.9%를 차지하는 등 5000원 이하 카드 결제도 이미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1만원 이하 카드 결제가 늘고 있으나 워낙 소액이다 보니 카드사의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다. 지난 9월에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금액은 1조613억원으로 전체의 2.5%에 그쳤다. 5000원 이하는 3200억원으로 0.8% 수준이었다. 이는 7월이나 8월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823.10 (+13.60)
▲ 코스닥지수	473.56 (+5.91)
▼ 금리 (국고채 3년)	3.40% (-0.02)
▼ 원·달러 환율	1155.90원 (-10.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한국인의 문화와 정신을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열정을 모아주십시오.



전복구이전문점

전복장터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광주·전남 기능장 1호

大山프리모가발

원장 이수재 011-607-5330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든상가 2층